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당국 경계심 및 저점 결제수요로 반등

■ 전일 달러/원 환율은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변동폭 확대에 따라 원화도 동반 강세가 나타날 전망으로 전일대비 1.0원 하락한 1,055.4원에 출발했다. 수출업체의 네고물량이 유입되면서 달러화는 장 초반부터 무거운 흐름을 보였고 차츰 레벨을 낮췄다.
 ■ 연 저점인 1,054원대에 들어서자 외환당국의 눈치보기가 계속되었고 저점 인식이 강해진 영향으로 장 막판 숏커버가 발생했다. 그동안 쌓인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저점 결제수요로 달러화는 매수 우위를 보이며 상승 영향을 받았다. 2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54.9원에 저점을, 1,058.3원에 고점을 기록하며 제한된 등락폭을 보였고, 결국 전일대비 1.5원 오른 1,057.9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55.40	1058.30	1054.90	1057.90	1056.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54.40	1060.02	1052.07	1058.31

금일 전망

美 FOMC 의사록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에 상승 압력 전망

■ 미국 FOMC 의사록에서 수개월내 자산 매입을 축소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6원 오른 1,059.5원에 출발하였다. 연 저점에 가까워진 달러화에 대한 레벨 부담으로 매도세가 주춤한 가운데 저점 결제수요와 공기업의 달러 매수까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일 달러화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환율 반등시마다 수출 업체의 네고 물량이 출회되고 있어 금일 달러화도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달러/원 환율이 빠른 하락속도를 보인 영향으로 1,060원대에 올라서면 대기중인 네고 물량이 유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으로 인해 금일 달러화의 반등폭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54.00 ~ 1064.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72.23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5원상승**
- 美 다우지수 : 15900.82, -66.21p(-0.4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59.7 억달러**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